

전남 남해안 수온 심상찮다

연평균 0.05도 상승...지구평균의 1.3배
 해수면도 6.5mm씩 높아져...생태계 변화

전남 남해안의 수온이 연평균 섭씨 0.05도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 해양의 수온이 연평균 0.04도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해안 수온 상승 정도는 25% 정도가 빠른 것으로, 해양 생태계와 연안 양식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순환과 중장기 변동 반응 및 예측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재학 책임연구원은 “여수 해수면의 평균 수온은 지난 1985년 이후 연평균 0.04~0.05도씩 올랐고, 전남 해안을 포함한 전국 연안 해수면도 지난 1993년 이후 연평균 6.4mm씩 올라갔다”고 밝혔다.
 최근 20년간 전 지구 해양의 연평균 수

온이 0.04도씩 상승하고, 해수면이 연평균 3.1mm씩 오른 것을 감안하면 전남 남해안의 수온은 전 세계적 추세에 비해 25%, 그리고 해수면은 갑절 이상 빨리 상승한 셈이다. 또 서남해안의 경우 인천 0.02~0.03도, 군산 0.03~0.04도, 목포 0.03~0.04도, 여수 0.04~0.05도씩 연평균 수온이 올라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록 수온 상승률이 높아졌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 해안과 일본의 동해 연안 해수면은 최근 30년간에는 연평균 3.2mm, 최근 14년간에는 연평균 6.4mm, 그리고 최근 9년간에는 연평균 6.5mm가 상승

해수면 상승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기상청의 1891~2005년 해수면 온도자료 등을 분석해서 얻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재학 연구원은 “해수면 평균 수온이 올라가면서 서·남해안에서도 난류성 어종이 급증하고 김 양식 물량이 감소하는 등 해양 생태계와 연안 양식업에 변화가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해수면 상승은 태풍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남 바닷물 미네랄 전국 최고

신안 증도, 속초보다 23배 많아...수질도 1등급

‘청정해역’ 전남 지역 바닷물에 게르마늄과 칼륨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대 갯벌연구소는 전남도 해양바이오 연구원과 함께 신안(증도·압해도)과 장흥, 해남 해역 그리고 강원 속초, 부산 기장, 충남 대천, 전북 변산 등 전국 8개소의 바닷물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미네랄 함유량의 경우 신안 증도의 바닷물이 8천680ppm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대천이 3천290ppm, 전북 변산이 2천685ppm, 부산 기장이 866ppm으로 뒤를 이었

다. 또, 강원 속초가 376ppm으로 가장 적어, 신안 증도는 강원 속초보다 총 미네랄 함유량이 무려 23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네랄 가운데 항종양 효과와 중금속 해독작용 등이 있는 게르마늄(Ge)은 신안 압해가 0.241ppm으로 부산 기장의 0.002ppm보다 무려 120배가 많았다.
 특히 오염도 조사결과 전남 서남해안의 용존산소량(DO)은 12.0~9.3mg/l로, 1등급 기준인 7.5mg/l를 훨씬 웃돌고 있는 데다, 수소이온농도(pH) 역시 1등급 범위인 7.8~8.3에 속해 있는 등 수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행기기자 redplane@



“F1 특별법 제정하라”

목포시와 영암·무안·해남군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주민 2천여명은 28일 전남도의회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영, LPGA 첫 우승 ▶ 22면



李청장 사퇴 거부...경찰 반발 확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연·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사퇴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4면>
 경찰청은 28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자리를 뜬 뒤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 청장의 용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관들의 청장 사퇴 압력은 이날도 계속됐다. 하위직 출신 전직 경찰관들이 주축인 한국사이버마약감시단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검찰수사 의뢰 철회와 경찰 고위간부 전원 퇴진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검증의 장이 될 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29일 광주를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날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광주 정책토론회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운하건설’ 공약을 놓고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홍준표·고진화 의원 간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0분간 지식과로 생중계되는 이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는 ‘경험과 비전, 전문가적인 면모가 부족하다’는 편견을 뒤집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전 시장은 자신에서 쏟아지는 모든 화살을 막아내고 ‘경제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등이 주목 거린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저격수’가 될 수 있을지,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자신의 색깔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 등이 관전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 정책토론회는 광주를 시발로 6월 8일 대전(교육·복지 분야), 19일 부산(통일·외교·안보 분야), 28일 서울(종합토론) 등 전국 4대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대선후보 검증 오늘 광주 토론회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검증의 장이 될 한나라당 정책토론회가 29일 광주를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날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광주 정책토론회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운하건설’ 공약을 놓고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원희룡·홍준표·고진화 의원 간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0분간 지식과로 생중계되는 이 토론회에서 박 전 대표는 ‘경험과 비전, 전문가적인 면모가 부족하다’는 편견을 뒤집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전 시장은 자신에서 쏟아지는 모든 화살을 막아내고 ‘경제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등이 주목 거린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저격수’가 될 수 있을지, 원희룡·고진화 의원은 자신의 색깔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느냐 등이 관전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 정책토론회는 광주를 시발로 6월 8일 대전(교육·복지 분야), 19일 부산(통일·외교·안보 분야), 28일 서울(종합토론) 등 전국 4대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이 트로피를 앞에 놓고 활짝 웃고 있다.

전도연,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영화배우 전도연(34)이 27일 오후 (현지 시각) 막을 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관련기사 6·17면>
 한국 여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베니스·칸·베를린)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지난 1987년 ‘씨받이’로 강수연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수상한 이후 20년 만이다. 칸 영화제에서 아시아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2004년 ‘클린’의 장민옥에 이어 두 번째다.
 전도연은 ‘밀양’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삶의 막장에 다다른 신에라는 여

인을 실감나게 연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영화제 최고영예인 황금종려상은 투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4 Months 3 Weeks and 2 Days)’이 차지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우양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총보실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게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총보실 1588-5051 ▶ T.(061)360-5000

국제약품 기원라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캄리윈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하였습니다.

"어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SENSTICK
 아름다운 입술
 입술에 비타민을 주자